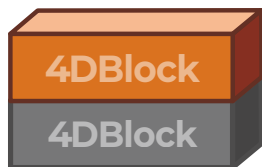


차시

2

쌓기 기술이 빛나는 신라의 천문대

첨성대



오늘의 건축물 : 첨성대

나라	대한민국
건축물 이름	첨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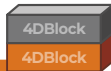


제작 배경



첨성대는 하늘의 별을 관찰하기 위해 만든 탑이에요. 신라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 농사 시기, 중요한 날을 알아내려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첨성대는 단순한 탑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과학 지식이 담긴 특별한 건축물이에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어, 신라 시대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유산으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첨성대 특징



- 둥근 원통형 모양으로 층층이 돌이 쌓여 있어요.
-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예요.
- 중간에 네모 모양의 창문 같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 돌들이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정돈되어 있어 패턴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 맨 위에는 다른 돌과 구분되는 '평평한 네모 돌(정자석)'이 놓여 있어 꼭대기 모양을 만들어줘요.

• 오늘의 미션 •

둥근 기둥과 관측창 모양을 살려
나만의 첨성대를 만들어보자!

개념 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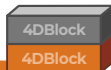
첨성대 건축이 특별한 이유



- 둥근 기둥 모양이라 힘이 사방으로 퍼져 안정적이에요.
- 돌을 층층이 쌓을 때 조금씩 위치를 바꿔,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 중간의 관측창은 별을 보기 좋은 높이와 방향을 고려해 만든 공간이에요.
- 가장 위의 정자석은 전체를 단단히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 돌을 규칙적으로 쌓은 층 구조를 통해 옛 사람들이 비례·대칭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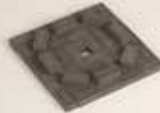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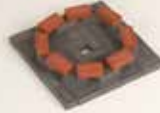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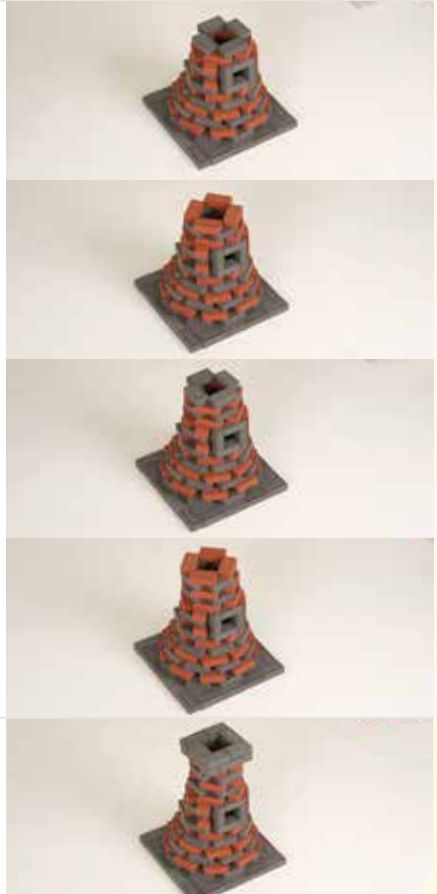
포디블럭으로 잘 만들려면



- 맨 아래 기단, 가운데 관측창, 맨 위 정자석 모양을 특히 신경 써서 쌓아야 해요.
- 층마다 색을 다르게 쌓으면 첨성대의 층 구조가 더 잘 보여요.
- 공간이 좁아지는 부분에서는, 블록을 세로로 넣어 쌓으면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

설 명	사 진
<p>Step 1 넓은 기반 만들기</p> <p>블록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촘촘히 깔아요.</p>	
<p>Step 2 1층부터 둥근 느낌으로 쌓기</p> <p>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진 원 모양처럼 첫 번째 층을 쌓아요.</p>	
<p>Step 3 점점 좁아지는 원통 모양 만들기</p> <p>2~4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 쌓아요.</p>	  
<p>Step 4 관측창 만들기</p> <p>블록을 세로로 세워 공간을 만들고, 양 옆은 가로 블록으로 튼튼하게 고정해요.</p>	
<p>Step 5 관측창 위로 다시 원형 쌓기</p> <p>관측창 위로 다시 원형 모양을 이어서 쌓아요.</p>	  



Step 6 상단부 완성하기

작은 정사각형 틀 모양이 되도록 블록을 깔끔하게 올려요.

완 성



오늘의 건축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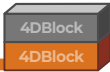
나의 작품



건축물 이름	
이름을 붙인 이유	

촬영한 사진을 가정에서 프린트하여 붙이거나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구조 원리 Quiz



빈칸 단어 :

좁아지는 / 정자석 / 원형 / 관측창

- 첨성대는 돌을 위로 쌓을 때 () 구조를 사용해 힘을 고르게 퍼지게 했어요.
- 블록을 쌓을 때 위로 갈수록 조금씩 () 모양이 되면 무게가 아래로 잘 전달돼요.
- 중간 () 부분은 블록을 세로로 놓아 공간을 만들었어요.
- 맨 위의 ()은 전체를 단단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오늘 나는 이런 건축가였다!



오늘 나는

건축가였어요!

- 내가 잘한 점 : _____
- 어려웠던 점 : _____
- 다음에 더 도전해 보고 싶은 것 : _____